





맞춤형 직원건강 및 작업환경 관리



안전보건관리센터

소음정밀진단컨설팅

KT&G 안전보건관리센터는 회사의 글로벌 안전보건기획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조직으로,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단순한 보건 관리에 그치지 않고 잠재적 직업성 질환 예방, 유해물질 관리, 건강증진, 작업환경 개선 투자 등 종합적인 보건 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해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소음정밀진단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KT&G의 안전보건 활동은 '인재중심'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건강을 우선시하는 기업 문화에서 출발한다.

글 편집실 사진 김지원



소음관리에 진심인 KT&G 안전보건관리센터

KT&G 설비는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설비 개조 및 변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설비의 도입부터 밀폐형 구조 및 소음 85dB 이하로 관리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동기 등 고소음 발생설비는 별도의 룸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소음 노출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흡음제 부착 및 고소음 공정 내 흡음실을 설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KT&G는 고소음공정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당 175,000원 상당 개인별 맞춤형 귀마개를 지급하고 있고, 영주공장 등 대부분 공장에서 사전 소음 예방을 위해 전사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KT&G 방경만 대표이사 또한 상황에 따른 2가지 타입의 맞춤형 귀마개를 제작해서 테스트 하는 등 소음 관리에 대한 진심과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종찬 센터장은 “소음 문제는 단기적인 의미보다 직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공장의 소음은 법적 기준인 90dB을 초과하지 않지만, 선제적인 조치를 위해 소음정밀진단컨설팅을 통하여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KT&G 안전보건관리센터는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

적으로 소음성 난청 질환을 예방하고자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소음정밀진단컨설팅’을 의뢰했다.

KT&G는 컨설팅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게 평가했다. 특히 노이즈맵은 소음 노출이 발생하는 공정과 설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기관과 노동조합, 근로자들이 소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공장별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주파수 분석, 소음 위험성평가, 관리기준 방안을 통해 향후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한 기획 및 개선 방향을 명확히 하고, 위험성평가 및 관리기준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스마트 건강검진 운영 체계 구축

KT&G 안전보건관리센터는 2022년부터 건강검진 IT 시스템을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예약 편의성을 높이고, 건강 진단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와 법적 준수를 철저히 하고 있다. 건강검진 IT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임직원들이 80여 개의 병원에 직접 연락해 예약을 하고, 진단 결과를 취합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으나, 건강검진 IT 시스템 도입 후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었다.

먼저, 임직원들은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실시간 검진 예약 현황을 확인하고,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예약을 할 수 있고, 시스템 내 예약 가능한 병원을 손쉽게 찾을 수 있어 예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건강검진 IT시스템 업체는 건강진단 결과를 일원화하여 전달해 주기 때문에 건강진단 후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나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에는 건강검진 사후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질환별 관리 기준을 세분화해 사후관리 방법과 주기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법적 기준을 넘어서 더욱더 세밀한 밀착관리를 하고 있다.

이종찬 센터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때, 조직의 생산성은 물론 동기부여와 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그동안 경험한 바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KT&G는 전사적으로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직업병 예방을 위해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남이 하지 않는 것도 선제적으로 하는 예방활동

KT&G 안전보건관리센터는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직업성 질환과 관련된 대표적인 유해요인은 ‘근골격계 부담작업’과 ‘소음’이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원료 투입장치에 리프트를 설치하고, 혼합기 원료 흡입장치 등을 도입하여 작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2024년에는 완제품 박스를 이동하는 협동로봇을 도입하여 근골격계 유해요인을 추가로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법적인 유해인자가 아닌 분진 대해서도 PM 10, PM 2.5, TSP(총먼지) 등 자가측정을 통해 노출 정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기타분진’으로 분류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 및 관리하고,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밀폐 및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작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직업성 질환을 미리 예방하는 KT&G 안전보건관리센터의 이러한 활동은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KT&G 안전보건관리센터는 2025년에는 업무상 질병 예방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소음 개선활동, 법적 미대상 분진 노출작업에 대한 밀폐 및 국소배기장치 설치, 훈증작업에 사용되는 약제의 대체 등 다양한 보건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유해요인 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위험성 인식과 개선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KT&G 안전보건관리센터는 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업무 차원을 넘어, 회사의 미래와 직원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한다. 🗣️

“보건 분야에서
모범적인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T&G 안전보건관리센터
이종찬 센터장



MiniInterview

정량화된 보건관리를 위해 선진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JEM(Job Exposure Matrix)을 도입하는 것이 앞으로 제가 추진하고 싶은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현재 저희는 다양한 유해인자를 발굴하여 노출 수준과 노출 기간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을 더욱 체계적이고 정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안전과 달리 보건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영향을 미치며 10~20년 뒤에 건강장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더욱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다.” 라고 항상 말합니다. 향후 KT&G의 보건관리체계가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